

선지식을 찾아서

목산

목산 스님은 1940년 제주도 중문 원만암에서 출가해 1943년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비구계는 만암 스님으로부터 수지했다.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으며, 오대산 백양사 수덕사 칠불암 등 전국 선방을 떠돌면서 수행 정진했다. 1965년 삼봉사에서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스승으로 받들었다. 19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고 19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수행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목산 스님 (보림사 회주)

“살생은 다음생의 원수 맺는 일”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 그런지 보림사 계단에 내려앉은 햇살마저 해롭기만 하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참선도량’이라는 팻말과 함께 ‘참선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자기 인생이 깨달아진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예까지 오느라 느슨해진 마음이 들연 긴장 모드로 바뀐다.

목산 스님은 한국의 유마거사라 일컫는 백봉 김기추 거사를 선지식으로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백봉 거사의 사진과 그가 쓴 액자 ‘광풍(光風)’이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재가 수행자들이 모여 백봉 거사가 주창한 ‘허공선’을 참구하는데, 목산 스님은 십 년 넘게 이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이제까지 깨달았다는 몇몇 고승들을 만났지만 백봉만한 사람이 없었으며, 백봉을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말한다.

세속의 거사를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는 스님의 결립 없는 자세가 바로 경계 짓지 않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조류독감으로 닭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는데 그 인과를 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닭들을 집어넣고 키우면 병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학대해서는 안돼요.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소나 닭, 장어, 미꾸라지 등 목숨 있는 것들을 막 먹어대는데 그것은 다음 생에 원수를 맺는 것이어. 불자라면 불살생계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들은 여러척은 중생들이 탐바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이 인과법문을 많이 설하였는데, 인과를 부정하면 안되지요. 인과법문은 과학적입니다.”

내일의 삶이 궁금하다면 오늘의 나를 돌이켜 보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는 인과법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한 순간도 그릇되게 살수는 없을 것이다.

“물이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부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들이 전부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상대적인 것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유감스러워요.”

현 대사회에서는 물질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또 정신만으로도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과 정신을 잘 조화시켜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산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산이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해와 달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해와 달이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어떠한 대소경계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자리는 맑숙하고 맑다는 것이지요. 물질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잘 굴림으로서 상대적인 물질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무병해야 정신이 밝아지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답고 넓고 견려해서 남을 존경하고 하심할 줄 알아야 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해. 이런 가운데서 덕이 생기는 것이지. 하지만 정신과 물질 또한 둘이 아니어서 물질이 정신이요 정신이 곧 물질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이 무한대의 시공간을 거리낌 없이 오고가니 정신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불성을 담은 그릇이니 소홀히 대해서도 안될 일이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유지를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다. 백봉 거사는 “나의 색인은 부처의 위의를 드러내는 대행기관이요,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요,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라고 했다.

스님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면서 요즈음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선근을 지었는지 돌아보게 된단다.

“중노릇은 시주승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생에 소 돼지로 태어나는 무서운 인과를 받게 되어요. 머리 깎고 가사 장삼 입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만 해도 굉장한 지위인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더 가졌다고 욕심 부리는 것은 허욕이

어, 부처님은 49년 동안 걸식하셨는데, 그것은 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며, 중생들과 인연 맺어 불법을 전하려고 한 것이지, 불교는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다른 것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언제 몸뚱어리를 버릴지 모르고 꿈결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금강경>에서 일체유위법은 모두 공환이라고 하는데도 승속(僧俗)이 철저히 믿지 않고 몸에 온갖 사치를 부려요. 아공(阿公) 법공(法空)을 알아야 하는데...”

요즈음이야 탁발이 없어졌지만 스님은 예전에는 거의 탁발해서 살았다고 한다. 부산 남천동에서 서울까지 보름동안 걸어서 왔는가 하면, 대구에서 탁발하고 대전에서 탁발해서 살았으며 지금 보림사 도량도 스님이 탁발해서 이룬 것이라 한다. 서울에서도 골목골목 안 들어가 본 곳이 없으며, 90일 동안 정릉에서 목탁 치면서 탑골공원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 주곤 했다.

“고행은 깨달음의 씨앗인데, 고행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신심이 강해지고 업장이 녹고 해인이 밝아집니다. 탁발을 하다보면 내가 허공을 삼키며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허공성을 느끼면 1700 공안이 무너져 내리지.”

허공 속에 내가 있고 수미산 속에 겨자씨를 넣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거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것과 목산 스님이 허공을 삼켰다는 그 한 소식은 짧은 소견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사경이나 염불도 그 공덕은 있겠지만, 참선하는 것에 비할 바가 못되며, 참선한다 하더라도 견성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말씀에 허공을 삼키면 어떤 맛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스님은 선지식 만나 공부하는 것도 전생에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거든 <초발심사경론> <선문활요> <육조단경> <금강경> <선가귀감>등을 선지식으로 삼아서 공부하라고 일러주신다. 스님이 건네주신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송>을 머리에 이고 나왔다.

글·사진= 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 「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 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레이키요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박희준)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 카루나 레이키** -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수제화로 제작 滿行靴

상표등록 : 614981호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소재특징 : 방수 크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탈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색
- 규격 : 215-230mm (키높이 특수제작)

총은섬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온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30mm
- 색상 : 회색, 흑색

탈 깔창

최고의 선물

※ 보시 하실 분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사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투신위브 맞은편으로 이전)